

긴 지금

The Long Now



전시 기간
2021. 08. 20-09. 18

전시 장소
d/p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약기상가 417호

기획
최나욱

참여 작가
이현중
전혜주
정재경
허수연

공간 디자인
최나욱
김건희

그래픽 디자인
최지윤

주관
새서울기획
소환사

후원
우리들의낙원상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ate
08.20-09.18.2021

Address
d/p
428, Samil-daero,
Jongno-gu, Seoul, Korea

Curator
Nowk Choe

Artists
Daniel Schine Lee
Hyejoo Jun
Jaekyung Jung
Suyon Huh

Spatial Design
Nowk Choe
Gunhee Kim

Graphic Design
Yuni Choi

Sponsors
Nakwon Arcade
Korea Mecenat Association
Arts Council Korea

d/p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약기상가 417호

d/p 기획지원프로그램 11
기획: 최나욱

2021. 08. 20-09. 18

참여 작가 Artists

작품목록 List of works

이현중 Daniel Schine Lee

잼앤록 [DSL-JNC21]
월넛 목재, 인덕션, LED
화면, 전자 회로, 푸시버튼, 헝그리 로봇 V2, 마이크, 2021
파고다 (고-고!)
나이키 코르테즈, 수제 밀창, 헤비 듀티 휠, 특수 고무 브레이크, 2021

전혜주 Hyejoo 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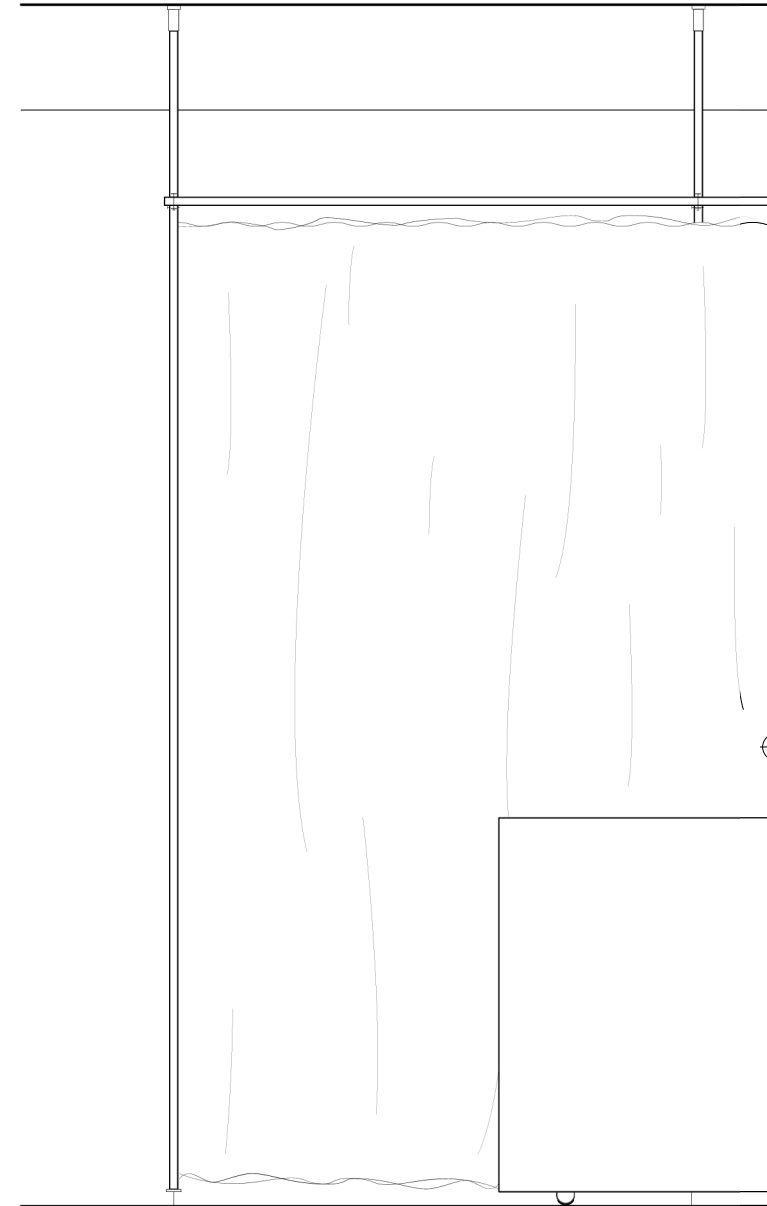
Matter of paradise
디지털현미경과 랩탑, 표본, 2021
Matter of paradise
수집된 식물표본 (4층 극장 앞), 사진 (디지털 프린트), 2021
Matter of paradise
낙원상가에서 수집한 먼지와 미생물 표본, 사진 (디지털 프린트), 2021
Tourist Gaze
JavaScript 기반 웹페이지, 반경 200m 이내 장소에 대한 Google Maps 리뷰, 2015

허수연 Suyon Huh

Monument
MDF상자, 콘크리트, 철근, 플라스틱, 한지, 종이죽, 다양한 드로잉 재료, 2021
Payphone
나무상자, 콘크리트, 철근, 플라스틱, 한지, 종이죽, 다양한 드로잉 재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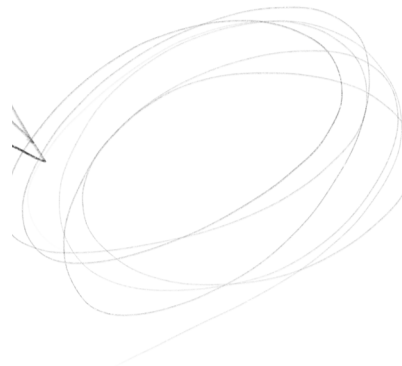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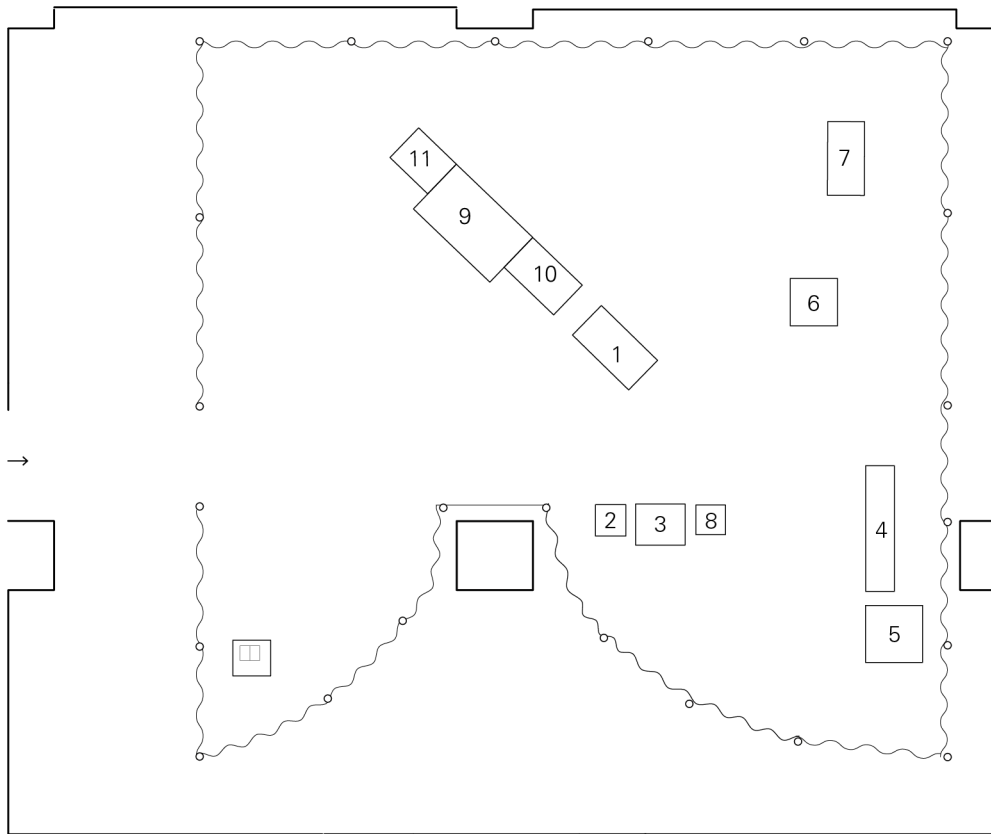
정재경 Jaekyung Jung

어느 마을
싱글채널 무빙이미지, 3,840x2,160 픽셀, 흑백,
사운드, 12분, 2019
어느 마을: 이미지 아카이브
흑백 디지털
출력된 사진, 2021
Records (황소인과 공동작업)
210x297x90mm 흑백
디지털 출력된 책 10권, 2012



왼쪽
Left
오른쪽
Right

전시장 평면도
Plan view
전시장 입면도
Elevation view



1
이현중
잼앤록 [DSL-JNC21]
월넛 목재, 인덕션, LED
화면, 전자 회로, 푸시버튼,
헝그리 로봇 V2, 마이크,
2021

2
이현중
파고다 (고-고!)
나이키 코르테즈, 수제 밀창,
헤비 듀티 휠, 특수 고무
브레이크, 2021

3
전혜주
Matter of paradise
디지털현미경과 랩탑,
표본, 2021

4
전혜주
Matter of paradise
수집된 식물표본 (4층
극장 앞), 사진 (디지털
프린트), 2021

5
전혜주
Matter of paradise
낙원상가에서 수집한 먼지와
미생물 표본, 사진 (디지털
프린트), 2021

6
전혜주
Tourist Gaze
JavaScript 기반 웹페이지,
반경 200m 이내 장소에
대한 Google Maps 리뷰,
2015

7
허수연
Monument
MDF상자, 콘크리트, 철근,
플라스틱, 한지, 종이죽, 다
양한 드로잉 재료, 2021

8
허수연
Payphone
나무상자, 콘크리트, 철근,
플라스틱, 한지, 종이죽, 다
양한 드로잉 재료, 2021

9
정재경
어느 마을
싱글채널 무빙이미지,
3,840x2,160 픽셀, 흑백,
사운드, 12분, 2019

10
정재경
어느 마을: 이미지 아카이브
흑백 디지털
출력된 사진, 2021

11
정재경 (황소인과 공동작업)
Records
210x297x90mm 흑백
디지털 출력된 책 10권,
2012

새로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 타임라인에 중계된다. '지금, 여기'를 향한 추동은 유행이나 트렌드보다 빠르고 일시적인 문화 개념을 고안해냈고, 문화 전반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쫓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잇따른다. 계속해서 유행하는 '지금, 여기'라는 말은 마치 전체 지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만 같은 착각과 동시에 얼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장 유행하는 기획과 논의에 맞추어 작업과 전시가 만들어진다. 시의성이라는 명목하에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이다. 먼저 해야 하고,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며 중요도를 판가름한다. 다만 시간이 지나, 과거에는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흔적도 없이 잊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 경주의 이유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일련의 것들이 단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면, 실시간으로 느끼는 시의성의 부담이 일종의 환상이자

We live in a capricious time which creates an influx of up-to-date information. Accordingly, the concept of 'Here and Now'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ince there is pressure to keep up with the latest trends and fads. The art scene is no exception to this concept. Nowadays, most artworks and exhibitions tend to follow contemporary trends. This overflowing atmosphere gives importance to interacting with timely topics immediately, but over time, most of these trends easily fade away. If a lot of timely cultures are fleeting, rapidly changing times and pressure to catch up with them need to be reconsidered.

British musician, Brian Eno pointed out the concept of 'Now' which swayed the cultural environment of priorities. The meaning of 'Now'

허구일 뿐이라면 한 방향으로 바빠 달려가고 있는 타임라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따름이다.

영국의 음악가 브라이언 이노는 오늘날 문화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말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지적한 바 있다. 거주하던 런던에서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을 때 해당 개념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다. 이노는 이 점에 착안해 '지금'이라는 말을 좀 더 연장하고 확장함으로써 그것이 유행을 좇는 압박이 아니라 역사를 꿰뚫는 개념이 되기를 제안했다. '긴 지금'은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쓸모없다고 폄하하는 판단 기준을 뒤바꾼다.

이 전시는 '지금'이라는 개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현종, 전혜주, 정재경, 허수연 네 명의 작가들은 논의하는 시간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활동하는 미술계라는 세상 역시 다양한 영토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함유한다. '지금'이라는 말 만큼이나 미술계 역시 모두 판이한 배경과 맥락에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각자가 추구하는 시의적 담론들 또한 다르다. 작가마다 다른 배경과 '긴 지금'을 다루는 태도의 다양성은 전시 주제에 어울리는 동시에 이를 확장한다.

이현종 작가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믿음의 허위성을 지적한다. 전시장인 d/p가 위치한 건물은 1세대 주상복합이자 당대를 대표하는 악기상가인 낙원상가로, <잭앤록 [DSL-JNC21]>은 정말 당시에 울려 퍼졌을 법한 사운드를 제작해 과거의 증거품으로 선보인다. 마찬가지로 그때 유행했던 음악과 패션, 과거를 증명하는 듯한 소품 <파고다 고-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역사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는 과거를 알리바이로 할 뿐 이제서야 새롭게 만들어진 가공된 역사다. 이렇듯 긴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is not absolute and can differ from things like situational locations, as Eno points out the differences between London and New York. By extending this concept further, the thought about 'Now' may sustain itself through history, not just as a fad.

The Long Now invited four artists who represent different art scenes, showing diverse perspectives regarding timeliness while pursuing the essence of cultural consumption beyond fads. Sometimes we understand the art scene as individual entities, but there are various contexts, backgrounds, and perceptions of 'Now'. With this consideration, timeliness both as a contemporary and longstanding entity can be seen as a comparative and individual concept, not as a definite one.

First, Daniel Schine Lee mocked the belief of timeliness. Using his deeper background about music and fashion, he shows fake archiving of 80's culture. "Jam and Cook[DSL-JNC21]" and "Pagoda Go-Go!", a sound-box and fashion merchandise respectively, seem to reflect this old-fashioned trend. However, this is only an alibi using a gesture to the past, as it is now a newly created artwork. If such urgent and important things can be dealt with despite any actual reason, how absurd and futile would it be if the hard work and follow-up work were dismissed as nothing after a while.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we must also

기획자 소개

최나옥

건축가, 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영국왕립예술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으며 건축평단 건축평론상, 그래비티이펙트 미술평론상을 수상했다. 2019년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사라지는 클럽을 아카이빙하고 동시대 문화를 다루는 <클럽 아레나>를 썼으며, 18세기 조선의 문인을 소재로 과거로부터 현대성을 발견하고 예술과 사회가 맺는 복합성을 다루는 <자하 신위>를 출간 예정이다. 2021년 d/p의 기획자 공모에 선정되어 <긴 지금>을 기획했다.

작가소개

이현종

1987년 출생. 런던의 첼시 예술대학교에서 순수미술 학사 그리고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래하는 사람>(루프, 서울, 2021), <콜렉티브 컬렉션>(을지예술센터, 서울, 2021), <엑소 포니>, <을지로 OF, 2021>, <The Whistler>(갤러리 ERD, 2020), <No Space, Just A Place : Eterotopia>(대림 미술관, 2020), <APT Live>(APT Studios, 런던, 2018), <Watch This Space>(Hackney Centre For Better Health, 런던, 2018)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듀오 콜렉티브 detox.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을지로 OF의 기획자, 현대무용단 리브레호벤의 음악 연출가이자 DJ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상호적인 관객 참여형 작업들을 선보이며, 언어, 소통, 그리고 하류문화의 근원을 기반으로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작업으로 풀어간다.

정재경

정재경은 도시 일상 속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명백하기 판단 내리기 어려운 지점을 추적하고, 이를 무빙 이미지와 아카이브 형식 안에서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여 전시로는 참여 전시로는 <<23 회 브르노 국제디자인비엔날레>>(모라비아 갤러리, 브르노, 체코, 2008), <<Public Space: Lost & Found>>(MIT 미디어 랩, 보스턴, 미국, 2014),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영상예술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5-18),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청주, 2021) 등이 있다. 최근 <코스모그래피아>(서울로미디어캔버스, 서울, 2019), <도깨비터>(신촌극장, 서울, 2020)를 진행하고, 현재 서울시-문체부 공공예술 프로젝트 <<리플렉트 프로젝트 Reflect Project>>(동대문구 답십리로209, 서울, 2021-24)를 총 감독하고 있다.

전혜주

전혜주는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Art and Media를 전공하여 석사과정 졸업 후 마이스터술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3-2014년에 리서치 기반 예술 프로젝트인 올라퍼 엘리아슨 스튜디오의 공간실험 연구소에 참여했다. 그는 도시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기록된 시간성에 관심이 있으며, 각 지역과 장소들을 리서치하며 수집한 시간의 흔적들을 설치나 오브제로 재구성, 또는 공공장소에 개입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다. <Body Check>(금천예술공장, 2020), <회전>(스페이스 캔, 2019), <회색입자>(플레이스 막, 2019)를 포함한 7회의 개인전과 최근 <식물계>(보안여관, 2020), <생생화화: 모호하지만 빛나는 소우주>(단원 미술관, 2020)를 비롯해 그동안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7), 인천아트플랫폼(2018), 경기창작센터(2019), 금천예술공장(2020)의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활동했다.

허수연

특정 대상이 지니고 있는 상징 체계에 질문을 던지며, 소재나 매체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양가성을 강조한다. 형태에 대한 도상학적 분석을 통해 각 개념이 갖는 모순점을 작업의 알레고리로 연장함으로써 양면적인 방법론에 대한 탐구를 지속한다. 참여전시로는 <CAKEY, A Cake is a Key!>(삼청동 과수원, 2021), <HPIX DOSAN X HUH SU YON>(에이치픽스도산, 2021), <22nd WHITE NOISE : PIGEON 피존>(화이트노이즈서울, 2021), <great exhibition 2019:Retrieve, Recycle, Revive>(g.gallery, 2019) 등이 있다.

조건이기도 하다. 현대 조각의 논의와 함께 잠시 논점을 마무리했던 좌대는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매체들의 특징을 고려해 제각각 설계되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주제를 더 잘 비추기 위해 좌대라는 강한 상징물을 사용하지만, 기존의 미술사적 논의를 그저 시의성을 넘어서자는 핑계로 무시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숙지하면서 주제에 알맞는 전시 디자인이 되도록 각별히 고려하였다. 오늘날 너무 많은 타임라인이 수반하는 유희성과 다양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좌대를 지대로부터 들어 올림으로써 전시장에서 작품들이 표류하는 풍경을 설계했다. 작가들이 '긴 지금'을 주제로 선보이는 책, 사운드박스, 수집한 표본, 영화 등 여러 작품들은 좌대에 올라 매우 중요하게 전시되는 동시에 완전히 정박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며 동시대 표류하는 문화를 연출한다.

전시는 <긴 지금>이라는 대조되는 제목 때마다 상이하게 여겨지는 개념을 오간다. 각자가 시의성을 따라 신경 쓰고 관심 갖는 타임라인을 다른 종류의 타임라인과 오래된 역사를 환기하며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고, 관람하는 공간 또한 전시장 주변의 건물과 도시 맥락과 대조를 만들며, 전시되는 작업 역시 미술의 강한 상징물인 좌대의 성질을 사용하는 동시에 상징성을 의심을 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지금 여기'에 대해 거리를 두는 자기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다.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신경 쓰고 나아가 피로함까지 느끼고 있을 때, 여기에서 빚겨나가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지금에 적합한 시의성이자 지금을 다루는 태도다.

only a reflection of existing discussions about pedestals in contemporary arts, but also shows our floating, unanchored era of timeliness. The tiny gap between the space and the pedestal gives the viewer a strange and uneasy feeling about the piece. Through this framework, one can imagine how future contemporary art will surpass outside the pedestal; ordinary objects in the past are constructed as art in the future.

The exhibition oscillates between these differing topics, as reflected in the contrasting title *The Long Now*. The different timelines, which are all connected to the city, are viewed from varying angles and evoke disparate temporal histories. The space around the exhibition also contrasts with the buildings and urban contexts. The work on display uses symbolism to make the viewer wary. Through this piece, we urge self-awareness to keep our distance from the present day, now and here that we ultimately prioritize in our visions and actions. When everyone cares about the events and actions of the present time, even to the point of exhaustion, we acquire, paradoxically, the right timeliness and attitude to dealing with the "Now".

하릴없이 다뤄질 수 있다면, 현재 열심히 만들고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 뒤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치부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한 일인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한 세기 남짓한 현대미술이, 추후 한 세기 뒤에는 어떻게 취급될지를 함께 고민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감상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돼버리는 상상 말이다.

다음으로 전해주 작가는 개인이 감각하는 세상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두 점 선보인다. 먼저 <Matter of Paradise>은 현미경이라는 다른 기관을 빌어아만 감각할 수 있는 미립자를 전시한다. 전시장 주변의 여러 상가를 비롯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에서 채취한 물질, 먼지 등을 표본으로 진열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자신의 세상에 빠져있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볼 때 기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듯, 전해주 작가는 '지금'을 대하는 상대적 관점을 극단적으로 일러준다. 다른 작품인 <Tourist Gaze>은 실제 장소를 정보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인 '구글 맵스'를 변용해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낸다. 표준이나 상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정보와 사실 간의 괴리를 인지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감각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재경 작가는 15년째 재개발 예정지인 서초구 내곡동 현인마을에 사는 유기견들을 다룬 <어느 마을>을 선보인다. 지금 버려진 강아지에 대한 기록은 이윽고 다른 시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던 논의로 연결된다. 눈앞의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확장되고 다른 것과 연관될 때 과연 우리가 지칭하는 '지금' '여기'의 범주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버려진 강아지와 슬럼의 강아지를 일부러 죽여야 하는 사연들은 마을을 서둘러

consider how contemporary art, which is only a century old, will be treated a century later.

Hyejoo Jun shows that people sense the world within their individual perspectives. "Matter of Paradise" comprises two light-boxes and a microscope displaying micro materials like dust collected from nearby city areas. In fact, Nakwon district, where the exhibition space is located, has a mixture of antiquated and modern design created by decades of history in contrast to contemporary gallery d/p. We can perceive the dust not just as micro material but also representing various types of people who are far from art scenes both physically and philosophically. Just as the landscape of existing worlds are changing as we look at the sky, this conception of comparison dictates our individual sense of the present. "Tourist gaze" intentionally makes an error regarding descriptions of Google Maps,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tion dictating reviews of places. Accordingly, we can recognize the separation between common sense and the actual world.

Jaekyung Jung explores the various kinds of communities by documentarizing Heonin Village which is a 12 year-old slum in Gangnam-gu, a representative wealthy town in Seoul. He shows footage of capturing abandoned dogs, which explores the actions of diverse people comparing those who take care of dogs and those who kill dogs in order to survive. Furthermore, this narrative expands

개발해야 하는 사업자의 시의성, 하루 살기가 바쁜 유기견의 시의성처럼 다양하고 상충하는 가치와 맞물린다. 다른 작품인 <기록>은 각종 물건을 모아 편집한 약 1만 2천 페이지 가량의 연작 책 중 한 권이다. 이른바 기념품이라 불리는 그것들은 공동 역사와 개인적 허구가 상호 교차하며, 거대한 타임라인이 상품화되고 일상 유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간다. 사소한 흔적이 곧 기나긴 역사와 동일시될 때 과연 우리가 현재를 판단하는 방식이 결코 순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친다.

마지막으로 허수연 작가는 다양한 시간, 장소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반죽한 다음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낸다. 여전히 작업의 재료들은 수많은 시간대를 가시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도상학에 기반한 형상은 일방적인 의미를 제안하여 과정과 결과의 대조성을 강조한다. <기념비>는 시대를 증명하는 상징물을 도상으로 사용하여 여러 시간대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단일 반죽으로 제작하는 한편, 지탱하는 좌대를 박스로 감추어 조각과 공간, 인식과 상징 간의 알레고리를 만든다. 지금 당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의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합쳐지고 무엇을 남길지, 그리고 단일하게 정리되는 의미와 간극은 작지 않다는 사실이 작업을 관통한다. 이렇듯 네 명의 작가가 서로 다른 태도로 상이한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모두는 '긴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로써 작품들끼리는 지금 우리가 미술을 구분하는 기준과, 각각의 미술계마다 언급하고 뒤쫓는 시의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획자 최나옥은 신생 미술 공간 d/p의 기획지원프로그램으로서 시의적 주제를 제시해야 할 때, 역설적으로 이 전시가 시의성 자체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획이기를 바랐다. 이는 지금 시대를

to the larger concept of moral ethics,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by following the macroscopic account described here. This cinematic documentary "A Village" stimulates imagining different subjects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dogs, but also developers, politicians, tourists who hold diverse values within the same concept. In a similar methodology, "Souvenir" is a series of 10 books recording numerous objects from Eurasia. They contain completely different meanings and forms in the same souvenir category. When smaller entities are identified within the context of long history, we realize that the way we judge the present is never instantaneous or absolute.

At last, Suyon Huh displays sculptures that are based on iconography, suggesting a one-sided meaning and emphasizing the contrast between the process and the result. This symbolic feature creates a dual meaning with her materiality. Because the material of sculptures consists of paper dough, which is a mixture of various objects, "Monumen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sculpture and pedestal through a strong layer of physical materiality. The iconography of the monument contains an accumulation of time in its own right, and this work made of paper dough expresses this aggregational process in a different way.

Surely, the 11 pieces of art refer to the present, but the "present" takes many forms of interpretation. Nowk Choe, the curator, hoped

뛰어보는 문제의식인 동시에 전시장이 위치한 종로구 낙원동 일대의 도시적 맥락과 결부되어있다. 전시장을 출입하는 주요 동선인 낙원빌딩이 내부 공간 이용과 무관하게 50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형성한 맥락이 상당히 각별하기 때문이다. 한때는 문화의 거점이자, 지금은 다중다기한 인구 구성이 모인 이곳은 전시의 맥락을 내외부로 확장시킨다. 그로 인해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미술의 어떤 논의를 떠올릴 때, 바로 주변에서는 이곳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운영되는 이질적인 특징들이 전시 관람에 개입할 것이다. '전시'라는 제한된 시공간의 형식은 안팎의 맥락과 함께 한층 더 풍부해진다.

따라서 전시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러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송화 색깔 커튼은 이러한 지점에서 고려된 것이다. 커튼은 전시장의 새로운 벽으로 기능함으로써 외부 맥락을 단절시키는 경계인 동시에 벽과는 달리 전시장과 마주한 실버 영화관과 주변의 맥락을 환기시킨다. 또한 건물 자체로서도 커튼은 근대 건축물로서 강한 그리드를 띠는 기둥을 가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규칙성에 균열을 낸다.

그렇게 조성된 공간에서는 좌대가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된다. '긴 지금'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하는 주제를 제시할 때, 앞서 말했듯 한 세기 역사가 채 안 되는 지금의 미술 전시와 작품들에 대해 물음을 무쳐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에 미술이 아닌 것이 후대의 의도에 따라 좌대에 올라 미술로 기능하듯, 지금은 현대미술의 논의에 따라 당연히 좌대 바깥에서 제작되고 감상되는 작품들을 일부러 다시 좌대 위에 올려 오늘날 미술이 다른 맥락에서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 미리 상상해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좌대는 서로 다른 관점과 매체를 다루는 작품들을 아우르기 위한

it would be a paradoxical exhibition to ponder the concept of timeliness itself. The irony lies in the fact that this exhibit challenges conceptions of timeliness, despite needing to present a timely theme as an open call to the emerging art space d/p.

This paradox is linked to the urban context in which the Nakwon building, which is not only the main route of the exhibition space, but also a gathering place for the older generations and culture in Seoul. When audiences enter the Nakwon building to discuss an art piece, the heterogeneity of the structures around the building that are unrelated to art contrasts with the viewing of the exhibition. The exhibition becomes richer in meaning when taken in the context of both inside and outside.

When it comes to exhibition design, the curtain is an effective tool for reflecting and hiding this concept. The curtain bends the rigid modernism style of the grid Nakwon building and creates a different atmosphere compared to the outside. Nowk Choe and Gunhee Kim who are space designers of this exhibition said that pine pollen color curtains make a peculiar spatial experience, especially through the site's location. Furthermore, they use the pedestal as symbolic tools for imagining *The Long Now*, and redesigned the pedestal to be floating by putting the wheel under them, with consideration to existing discourse about contemporary art. This floating pedestal is not